

한전 송전선로 지원금 갈등…시골마을이 시끄럽다

무안 망운면 마을 간 지원액 1억 이상 차이 나고 불투명 사용 정황 논란
한전 “증빙 후 지급” 해명…주민들 “대책위원장이 유용” 감사·수사 촉구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서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한전)의 154kV 무안·운남-신안·음동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특별지원금(상생발전기금) 집행에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한전이 각 마을에 수역원을 지원했지만 마을 간 지원액이 최대 1억원 이상 차이 나고, 일부 지원금은 불투명하게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운남면 10개 마을은 마을당 3억4000만원씩 일괄 지급된 반면, 망운면 6개 마을은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세대 수와 관계없이 금액이 제각각”이라며 “일부 마을은 대상이 아닌데도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초반에는 공사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였지만, 이후에는 서류만 제출해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일부 마을에서는 지원금이 농기계나 차량 구입 명목으로 지급됐다가 현금화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대책위원회의 이해충돌 의혹이다. 망운면 보상대책위원회는 현직 이장단장과 전직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은 “위원장이 자신의 친인척과 거래를 통해 지원금을 유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조과 등과 함께 영농법인을 설립한 뒤, 장재마을이 받은 4억3000만원 중 3억3000여만원을 사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를 ‘마을 공동토지’로 위장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거래는 주변 시세보다 3배 이상 비싼 금액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보상액을 더 받게 해줬다”라며 대책위 측에 ‘수고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주민 송모(60) 씨는 “세대당 600만원씩 책정된 지원금 중 세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공제됐고, 대책위가 수고비까지 떼어 갔다”라며 “근거 없는 공제와 세대 수 부풀리기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특별지원사업비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지급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는 지역 위원회에서 담당한다”라며 “관리 인력 부족으로 전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상생기금이 일부 인사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라며 감사원 감사와 수사 착수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방지하려면 전국 공공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지원금은 공개된 매뉴얼 따라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안=글·사진김민준 기자 jun@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중인 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상생발전기금 집행을 둘러싸고 주민들간 지원금 차등지급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망운면 정작마을 송전탑 공사현장.

유기견 사진이 성적 수치심?…단체방 올린 기초의원 윤리위 제소

여성 의원이 불쾌감 표출

나주시의회 한 기초의원이 의원 단체 대화방에 자신이 구출한 유기견 사진을 올렸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정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7일 나주시의회 소속 A의원을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요청을 받았다. 지역위원회는 A

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강아지 사진이 여성의원인 B의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도당 윤리위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어린 연령의 수컷 강아지가 다리를 벌린 채 사람 손에 올려져있는 모습으로, 사진 속 강아지는 유기견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A 의원이 직접 구출한 강아지로 알려졌다. 그러나 B의원이 불쾌함을 표했고, 도당 윤리위 제소까지 이어졌다는 게 지역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A의원은 단체 대화방에서 의원들간의 견 다툼이 벌어지자, 어린 강아지 사진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목적에 문제의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A의원은 자신의 유기견 구조활동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같은 강아지 사진을 특별한 의도가 없이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여성의원인 불쾌함을 느끼고 알려진 만큼, 도당에 윤리위 제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전남 기온 뚝…당분간 쌀쌀

아침 최저 기온 8~14도

광주·전남 지역의 본격적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아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더욱 낮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찬 공기 유입과 더불어 ‘복사 냉각’ 효과로 맑은 날씨인 고기압권에서 열 방출이 많아 기온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7~14도, 최고 21~23

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겠다. 21일 아침 최저 기온은 8~14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에 머무르겠고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 바람이 초속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으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지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전남교사단체

이정선 교육감 기소 촉구

광주·전남교사단체가 검찰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등 3개 단체는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선 교육감을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이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불거진 ‘교육감 친구 감사관 채용 비리’는 임기 종료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단호하게 이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채용 실무자인 인사담당 사무관이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며 “재판 과정에서 교육감 지시 여부와 관련된 진술과 사무관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증거력을 인정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누런 수돗물 나온다”…광주 곳곳 민원 쇄도

망간 검출 확인…기준치 밑돌아

누런 수돗물이 나온다는 주민들 민원이 잇따르면서 광주시가 조사에 나섰다.

20일 당근마켓 등에는 “샤워기 필터가 하루 만에 누렇게 변했다”, “샤워 후 몸이 가렵고 붉은 반점이 올라왔다”는 글이 잇따랐다. 광산구 신흥동, 도산동, 산정동, 우산동, 서구 풍암동 등지 주민들도 “우리집도 그렇다”며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7일 민원이 잇따르는 광산구 일대 아파트에 공급된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 망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덕남정수장에서 조사검출된 정수 망간 농도는 0.045mg으로, 수돗물 기준치(0.05mg/L)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덕남정수장의 망간 농도는 0.007mg, 16일 0.005mg 수준이었으나 민원 접수가 집중된 17일에만 0.045mg의 망간이 검출됐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시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주암댐 하층에 있던 망간이 용출돼 원수로 유입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교체 하루만에 변색된 샤워기 필터기.

원수로 유입된 고농도의 망간이 봉산 배수지를 거쳐 광산구 일부 아파트 저수조를 통해 가정으로 유입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피해가 확인된 곳은 첨단 1차 부영, 첨단 라인 1차 주공, 운남 4단지, 서촌 2차, 국제 미소래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30여 건에 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고 직후 정수 공정을 강화하고 잔류염소를 추가 투입해 현재는 정상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며 “피해 집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